myFord

2018 NOVEMBER VOL. 12

INTO THE AUTUMN FESTIVAL

단풍과 억새가 장관을 이룬 가을 축제의 시간, 익스플로러와 함께해서 더욱 즐겁다.

LET'S GO!DO! CAMP

익스플로러 오너 캠퍼들을 위한 '2018 Go!Do! Camp' 현장으로 초대한다.

CONVERGENCE & UPGRADE

융합하고 개선해 끊임없이 선보이는 포드의 새로운 기술을 알아본다.

Go Further

THE FUTURE IS EXPLORER

거대한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온 · 오프 로드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존재감이 돋보이는
익스플로러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Step Forward,
2019 포드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붉은 노을과 높고 청명한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내는 요즘,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이 멀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포드코리아는 수입 대형 SUV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익스플로러의 2018년 신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2018 뉴 머스탱까지 소개하며 고객들과 바쁘게 만나왔습니다.
무엇보다 2017년 수입 SUV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한 익스플로러는 올해 초, 편의 사양 및 첨단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8년형을 출시해 베스트셀링 모델로서 그 명성을 당당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4년 동안 포드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전 세계 스포츠카 마니아들의 애마로 사랑받아온 머스탱의 활약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머스탱만의 배기음뿐 아니라 디지털화된 계기반, 첨단 기능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머스탱이 완벽히 조화된 모습을 만들어내며 그야말로 '보고, 듣고, 달리는' 재미를 고객들께 선사했습니다.
고객들의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포드코리아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포드 SUV 고객님들을 위해 마련한 고두캠프(Go!Do! Camp) 행사에서 고객님들을 가까이 만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5월부터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를 비롯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2018년은 포드코리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가올 2019년에도 최고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포드의 행보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포드코리아가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myFord

2018 NOVEMBER VOL. 12

02 INTRO
THE FUTURE IS EXPLORER
존재감이 돋보이는 익스플로러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04 CEO MESSAGE
STEP FORWARD, 2019 포드코리아

SPECIAL THEME

06 RUN WITH THE FORD
INTO THE AUTUMN FESTIVAL
단풍과 억새가 장관을 이룬 가을 축제의 시간, 익스플로러와 함께해서 더욱 즐겁다.

16 CAMPING
LET'S GO!DO! CAMP
익스플로러 오너 캠퍼들을 위한 '2018 포드 고두 캠프(Go!Do! Camp)' 현장으로 초대한다.

24 PLACE
FALL IN THE AUTUMN FESTIVAL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국내 곳곳에서 펼쳐진 축제 현장을 소개한다.

30 ABROAD
FESTIVAL SEASON
전 세계인의 축제로 손꼽히는 뉴욕의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와 쾰른 카니발 속으로.

PLAY WITH FORD

36 NEW FORD LIFE
CONVERGENCE & UPGRADE
융합하고 개선해 끊임없이 선보이는 포드의 새로운 기술을 알아본다.

42 GLOBAL FORD 1
RANGER TREND REPORT
포드 레인저가 새로운 트렌드 변화를 예고한다.

48 GLOBAL FORD 2
F-150 FACT CHECK
픽업의 대표주자, F-150의 진가를 전한다.

52 SPECIAL
REPEAT VICTORY
GT40 경주차를 기념한 포드 GT 헤리티지 에디션이 탄생했다.

56 ISSUE 1
CAMPING STORY
배우 데이비드 맥기니스가 익스플로러와 함께 떠난 캠핑 이야기.

58 ISSUE 2
SAFE DRIVING WITH LIMETUBE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라임튜브와 포드가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쳤다.

60 FOCUS
EXCITING DRIVING
놀라운 퍼포먼스를 경험한 '머스탱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Mustang Driving Experience)' 현장 속으로.

64 SOCIETY
GOOD CORPORATE CITIZEN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포드가 펼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만난다.

66 INFO
CAR CARE TIP
마스터 테크니션이 꼼꼼히 짚어주는 겨울맞이 차량 관리법.

68 FORD KOREA NEWS
포드 코리아 주요 뉴스

70 FORD GLOBAL NEWS
포드 글로벌 주요 뉴스

72 LINE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74 FORD NETWORK
전국 포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네트워크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 · 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이며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INTO THE AUTUMN FESTIVAL

가을 축제가 시작됐다. 온 산에 단풍이 물들고 바람 불 때마다 억새가 울어댄다. 하늘에는 불꽃이 별처럼 쏟아져 내린다. 축제의 시간, 익스플로러와 함께하기에 더욱 즐겁다.

EDITOR 김민정
DRIVING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PHOTOGRAPHER 류창렬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형형색색 화려한 단풍, 바람의 노래를 전하는 억새 등 가을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축제가 끊임없이 펼쳐진다."

온 세상이 노랗고 붉게 물드는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기나긴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에는 봄을 준비하기 위해 움츠러든다. 동면과도 같은 정적인 침묵을 이겨내려면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기억을 미리 간직해야 한다. 형형색색 화려한 단풍, 바람의 노래를 전하는 억새 등 가을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축제가 이어진다. 눈과 귀로 긁어모은 가을 축제의 추억은 황량한 겨울, 지루함을 달랠 때 조금씩 꺼내 쓰면 된다.

온 산자락을 물들인 단풍을 보러 다니기에는 SUV가 제격이다. 익스플로러는 단풍 구경 가기에 딱 맞는 차다. 단풍 구경의 절반은 차 안에서 이뤄진다. 가는 길에도 계속 단풍이 눈에 들어온다. 익스플로러처럼 넓고 편안한 차가 좋다. 호젓하게 혼자 단풍의 정취를 느껴도 좋지만, 축제는 여럿이 함께 즐겨야 제맛이다. 익스플로러는 7명까지 탈 수 있고, 3열 뒤쪽 트렁크 공간이 594L나 된다. 사람과 짐 모두 가득 타고 실을 수 있어서 어디든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다. 파노라마 루프를 열면 사방은 물론 머리 위로도 화려한 단풍이 찾아온다.

툴레(Thule)는 편리하고 안전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해 차량 외부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루프 박스를 제안한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알록달록 오색 단풍과 억새들의
은빛 물결이 춤추며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가을 풍경을 완성한다."

단풍은 추운 북쪽에서 시작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간다. 단풍과 함께 가을 명소로 꼽히는 억새밭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 단풍을 따라다니고 억새밭을 찾아가려면 기동력 좋은 차가 유리하다. 순도 높은 단풍을 보려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억새밭은 평지는 물론 산등성이에도 펼쳐져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도 다니려면 안정성도 갖춰야 한다.
익스플로러는 274마력의 힘을 내는 2.3L 에코부스트와 294마력의 3.5L 엔진을 얹는다. 에코부스트는 2500rpm부터 쏟아지는 41.5kg · m의 강한 토크가, 3.5L는 자연흡기의 매끈한 가속이 일품이다. 가속이 여유로워 큰 차체를 가뿐하게 이끄는 덕에 운전이 편하고,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을 갖춰 움직임이 안정적이다.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거나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릴 때 끈끈하게 바닥을 움켜쥐어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전자제어 주행 안전장치를 내장한 어드밴스트랙은 엔진 출력과 제동력을 제어해 미끄러짐과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롤링을 막는다. 포장도로는 물론 오프로드도 문제없다. 지형 관리 시스템은 정상 · 진흙 · 눈 · 모래 등 지면 상황에 맞게 차의 상태를 최적으로 맞춘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힐 디센트 컨트롤이 속도를 일정하게 제어한다. 단풍이나 억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달려간다.

"가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억새들이 바다처럼 펼쳐진다.
바람결을 따라 흔들리는 억새밭 사이로 달려가자 억새들이
파도 소리를 내며 가을의 낭만을 노래한다."

서리 맞은 단풍은 봄꽃보다 붉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단풍은 보는 즐거움이 크다. 억새는 보는 것은 물론 파도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로 듣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하지만 가을 축제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도로도 복잡하고 주차장에 차를 대기도 힘들다. 그러나 익스플로러라면 걱정 없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는 물론 앞차와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더 나아가 앞차와 충돌이 예상되면 경고를 보내고, 경고에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예비 제동을 가한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하거나 원래 방향으로 되돌리고,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은 차선을 변경할 때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경고한다. 단풍과 억새를 구경하러 가는 길이 피로하지 않으니 더욱 즐거워진다. 주차장에서는 180도 전방 카메라, 자동 주차를 돕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후측방 위험물을 경고하는 후측방 경고 시스템 덕분에 안전하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 그저 단풍과 억새 구경에만 집중하면 된다.

"폭죽 소리와 함께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한 불꽃이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도심의 밤하늘에 핀 불꽃이 깊고 진한 가을의 추억을 선사한다."

불꽃 축제는 보고 듣는 즐거움을 모두 선사한다. 하늘 위에서 터지는 불꽃은 형형색색 단풍처럼 빛나고, 팡팡 터지는 폭죽 소리는 억새 소리에 비견할 만하다.

가을밤, 불꽃 축제를 보러 가는 길에도 익스플로러가 함께한다. LED 로빔 덕분에 전방 시야는 더욱 밝고 선명하며, 오토하이빔은 알아서 멀리 비춘다. 서늘한 가을밤에는 차 안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하는 정취가 남다르다.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시트 히팅 기능을 켜서 따뜻하게 앉아 있으면 이보다 좋은 감상 포인트도 없다. 시트를 접으면 더욱 편한 공간이 생긴다.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는 발동작만으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린다. 3열은 파워폴드 기능 덕분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접힌다. 마치 평상에 앉은 듯한 기분으로 실내 공간에서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은 익스플로러와 함께하기에 더 즐겁다. 가을 축제가 끝나면 무슨 낙으로 살까 하는 공허함이 밀려들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익스플로러와 함께하는 시간이 곧 축제다. 가을은 그저 익스플로러와 함께하는 시간 중 일부일 뿐.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LET'S GO!DO! CAMP

포드가 몽산포 오션 캠핑장에서 익스플로러 오너 캠퍼들을 위한 '2018 포드 고두 캠프(Go!Do! Camp)'를 진행했다. 태안의 드넓은 갯벌과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을 캠핑 축제처럼 풍성했던 현장으로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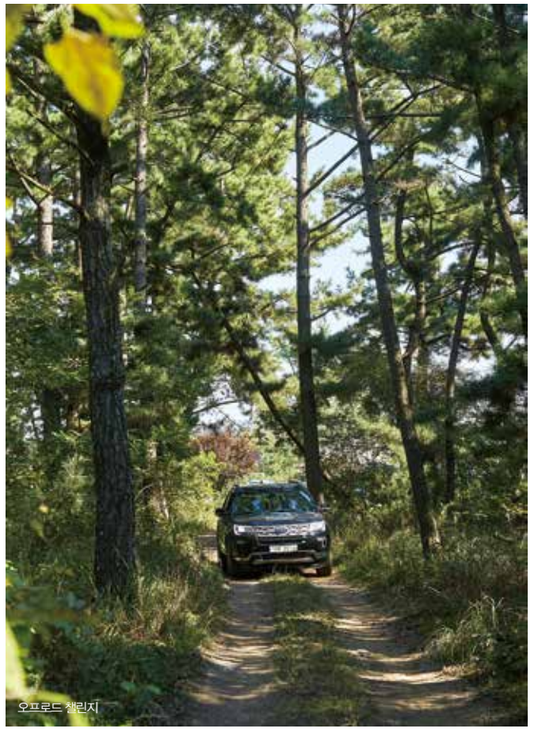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김권석

넓은 공간과 여유로운 힘, 오프로드 주행에도 안성맞춤인 익스플로러는 캠핑에 최적화된 SUV 차량으로 손꼽힌다. 포드는 아웃도어 마니아와 캠퍼 익스플로러 오너들을 위해 올해로 3년째 고두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몽산포 오션 캠핑장에서 지난 9월 1일 1차와 10월 13일 2차로 나눠 총 700팀을 선정해 진행했다. 열띤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친 지난 1차 고두 캠프에 힘입어, 2차 고두 캠프는 더 많은 오너들이 신청해 그 시작부터 뜨거웠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10월 13일, 몽산포 오션 캠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2차 '2018 포드 고두 캠프(Go!Do! Camp)' 참가자들의 익스플로러가 하나둘 도착했다. 지역과 성별, 연령대, 참여 인원을 다양하게 고려해 선발한 350팀이 타고 온 익스플로러가 캠핑장을 가득 메운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자연을 벗 삼은 캠프의 시작

'자연을 즐겨라(Explorer with Nature)'라는 주제로 펼쳐진 2차 고두 캠프는 익스플로러와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착한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바다 앞 A존, 소나무 숲 B존, 아늑한 C존으로 테마에 맞춰 구역을 택했다. 알록달록한 열기구가 시선을 끄는 잔디광장에는 스노우피크와 스탠리, 툴레, 하이브로우의 캠핑과 아웃도어 용품 브랜드 부스가 있어 제품 전시와 함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어른들은 텐트를 설치한 뒤 특별 프로그램인 포드 오프로드 챌린지와 트렁크 수납 게임, 목공 클래스, 쿠킹 클래스를 신청하고, 아이들은 키즈 존에 설치한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에서 방방 뛰며 깨끗한 공기와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을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전문 사진작가가 상주한 포드 포토 존에서 익스플로러와 함께 멋진 인생샷을 찍거나 포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휴식 같은 오전 시간을 즐겼다.


오프로드 챌린지

트렁크 수납 게임

목공 클래스

오프로드의 강자

오후에는 포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도심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익스플로러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오프로드 챌린지'는 인스트럭터와 함께 캠핑장 일대에 마련된 코스를 달리며 지형에 맞춰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드라이빙 체험. 참가자들은 좁은 농로와 산길, 모래길을 차례로 달리며 다이얼을 통해 깊게 파인 길, 모래, 내리막길의 지형 관리 시스템 변경에 따른 차이점과 내리막길에서 시야를 확보해주는 전방 180도 카메라의 가치를 경험했다. 참가자 최지원 씨는 "가족들과 함께 오프로드를 마음껏 달릴 수 있어 좋았어요. 지형을 고려해 간편하게 다이얼로 변경하니 험한 길도 승차감이 탁월해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드넓은 몽산포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익스플로러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짜릿함을 선사했다.

스피드로 승부하는 트렁크 수납 게임

야외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캠핑은 넉넉한 적재 공간이 필수다. 익스플로러는 2열 60/40 분할 접이식 시트와 3열 파워폴드 시트를 접어 1240L의 넉넉한 적재 공간을 자랑한다. '트렁크 수납 게임'은 이 넓은 트렁크에 크고 작은 박스 1140L를 빠르게 넣는 시합이다. 선착순 70팀의 도전자 중 첫 도전 팀인 이수진 · 이시언 부자는 "금방 넣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전략적으로 박스 크기를 고려해 넣어야 했는데, 아쉬워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안 되겠지요?(웃음)"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나무와의 교감, 목공 클래스

목공예 퍼니처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하이브로우는 자연과 가장 친숙한 소재인 나무로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기념품을 만드는 목공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고두 캠프 웰컴 키트의 밀크박스 뚜껑으로 나무판을 샌딩 작업해 잘 다듬은 뒤 고두 캠프 마크를 새기고 옻칠해 완성하는 작업으로,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유형준 씨는 "처음 해보는 목공예라 신기하네요. 안 그래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연친화적 나무 소품을 만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라며 직장인이라 낯선 샌딩기 및 전동공구를 사용해 완성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고 전했다. 목공 클래스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멋진 뚜껑으로 웰컴 키트 밀크박스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이라며 즐거워했다.

사이즈가 남다른 돈 스파이크의 쿠킹 클래스

유명 작곡가이자 방송인 돈 스파이크가 고두 캠프를 위해 요리사가 되었다. 방송을 통해 미식가이자 대식가로 알려진 그가 진행하는 쿠킹 클래스이기에 참가자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돈 스파이크가 쿠킹 클래스에서 시연한 메뉴는 소고기 드라이에이징 바비큐. MC 이상진의 진행 아래 돈 스파이크는 쿠킹 쇼 형식으로 요리하며 관람하는 참가자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품질 좋은 참숯을 피운 뒤 소금, 후추, 트러플 올리브 오일, 버터, 마늘로 적당히 시즈닝한 드라이에이징 채끝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역시 돈 스파이크답게 큼지막하고 두툼한 고기 약 8kg을 구우면서 바비큐 요리 꿀팁을 알려주었다. 화이트 트러플 향이 가미된 오일을 잘 발라 육즙을 가두고 살짝 고기를 튀기듯 굽는데, 이때 겉이 살짝 익은 고기에 버터를 바르면 더 맛있다고 귀띔한 것. 새송이버섯은 자르지 않고 통으로 구워야 수분이 가득해 관자 같은 식감으로 즐길 수 있으며, 파인애플이 지방을 흡수하기에 구워서 고기와 같이 곁들일 것을 추천했다. 총 세 번 뒤집어 구워 완성한 고기는 먹기 좋게 썰어 참가자들과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고추냉이만 살짝 곁들여 고기 본연의 맛을 느껴보라고 제안했다. 가족들과 함께 쿠킹 클래스를 지켜본 이시연 양은 "방송으로만 보던 돈 스파이크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해요.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고기도 진짜 맛있고요"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돈 스파이크와의 미니 인터뷰

Q 고두 캠프에서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신 소감은?

A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익스플로러 오너들을 가까이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며 요리도 하고 함께 나눠 먹기도 해서 좋았어요. 다만 고기를 더 맛있게 구워야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Q 이번 쿠킹 클래스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A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념으로 나중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단순화했어요. 육향이 강한 드라이에이징 고기로 연화되어 있어 부드럽기 때문에 고기의 식감을 그대로 즐기는 게 좋아요. 그래도 조금 심심하다 싶을 땐 고추냉이를 곁들여 드세요.

Q 캠핑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자연은 그 자체로 좋은 것 같습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살다 야외 공간으로 캠핑을 나오면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캠핑을 하다 보면 평소와 달리 뭔가 더 각별해지는 것 같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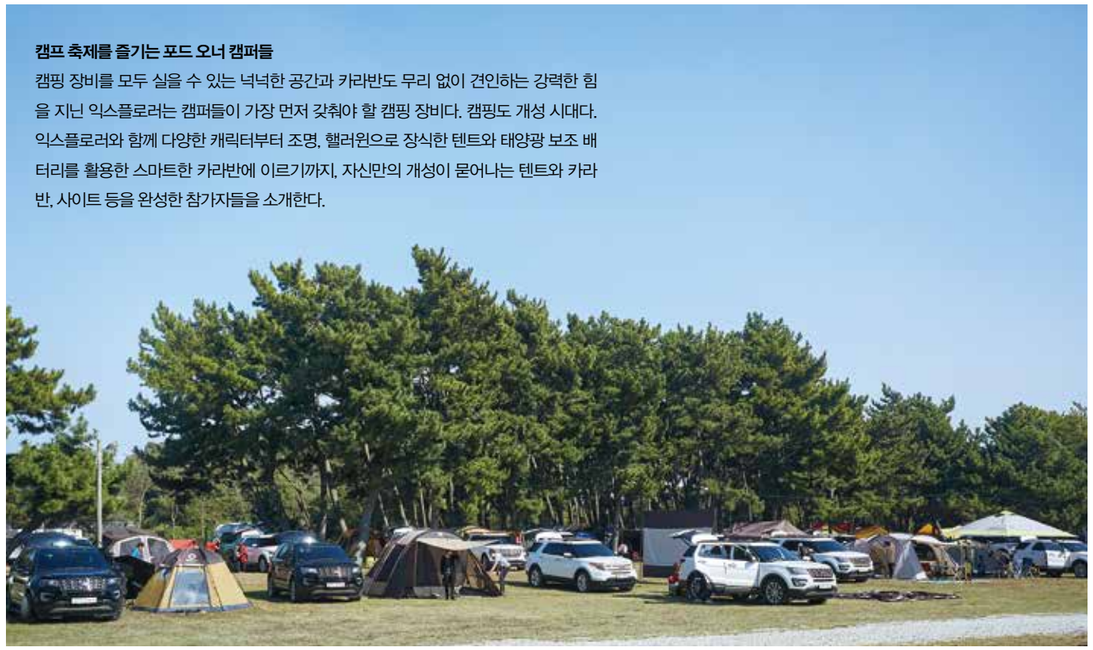
Q 포드와 익스플로러에 대한 평소 이미지나 생각이 궁금해요.

A 크고, 실내 공간도 넓고 튼튼한 미국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요. 포드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고, 익스플로러는 국내 SUV 판매 1등 모델이잖아요. 뛰어난 퍼포먼스와 성능을 갖추고 안정성까지 뛰어나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돈 스파이크의 쿠킹 클래스

캠프 축제를 즐기는 포드 오너 캠퍼들

캠핑 장비를 모두 실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과 카라반도 무리 없이 견인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익스플로러는 캠퍼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캠핑 장비다. 캠핑도 개성 시대다. 익스플로러와 함께 다양한 캐릭터부터 조명, 핼러윈으로 장식한 텐트와 태양광 보조 배터리를 활용한 스마트한 카라반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텐트와 카라반, 사이트 등을 완성한 참가자들을 소개한다.



하이브로우 밀크박스 안에 피크닉 매트, 헬리녹스 택티컬 체어, 스탠리 플라스크, 존슨빌 소시지, 아임쏘리 포마이 스킨 트래블 마스크, 오프(모기 퇴치제), 포드자동차 스티커를 넣은 고두 캠프의 웰컴 키트.

이세왕, 박명경, 이진욱, 이진우, 이지민 가족

"가족이 다섯 명이라 7인승 중 가장 큰 차인 익스플로러를 망설임 없이 선택했어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 3열을 자주 사용해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접히니 무척 편리합니다. 아내도 함께 운전하기에 앞좌석 멀티컨투어 시트로 운전자의 체형에 저장된 버튼만 누르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항상 사용해요. 앞차와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해 핸들만 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노인환, 고행선, 노율 가족

"이번이 첫 캠핑이에요. 지난해 진행한 포드 캠프 사진과 영상을 보고 꼭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지난해 12월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하고 이렇게 오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 하루를 알차게 보냈어요. 포토 존에서 찍은 가족사진도 예쁘게 잘 나왔고, 돈 스파이크 쿠킹 클래스에서 맛본 고기도 맛있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열기구 탑승에 도전했는데, 고소공포증을 해소했답니다. 익스플로러는 고속도로 주행 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같이 켜두면 확실히 안정적 주행이 가능해요. 장거리 운전은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기 마련인데, 정말 편안합니다."

유진호, 김화연 부부

"지난해에도 포드 캠핑 행사에 참여했는데, 운 좋게 고두 캠프 2차에도 뽑혀 기뻤습니다. 2주에 한 번은 캠핑을 해요. 캠핑의 매력은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익스플로러 오너들이 모두 모이니 자부심도 생기고 특색 있어 좋아요. 예전에는 텐트 캠핑을 했는데, 익스플로러를 구입한 뒤 워낙 힘이 좋아 카라반도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서 카라반 캠핑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차량을 구입했다면 지금도 텐트 캠핑을 즐기고 있겠지요! 오프로드 자갈길을 달릴 때 다이얼로 모드를 바꾸면 미끄러지거나 헛돌지 않아 가장 좋습니다. 승차감과 안정감이 다른 SUV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이현준, 최경선, 이민호, 이민아 가족

"캠핑을 자주 다녀 큰 차가 필요했는데, 아내가 시승 후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다고 해서 바로 구입했어요. 무엇보다 3열 자동 폴드 시트가 편리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항상 켜두고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5년, 10km 무상 보증 서비스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들 민호는 익스플로러만 보면 '아빠 차'라고 외치는데 고두 캠프에 오니 전부 아빠 차라고 좋아하네요. 장소 선정도 탁월했고, 프로그램 구성도 완벽한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김영창, 정현경 부부

"캠핑을 워낙 자주 즐겨요. 카라반 견인을 위해 3개월 전 익스플로러를 구입했어요. 다른 SUV와 비교할 수 없이 힘이 좋아 부드럽게 잘 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두 캠프에 처음 신청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트렁크 수납 게임에 참여했는데 1분을 넘겨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자체가 행복이죠."

쌀쌀 가을밤에 온기를 전해준 바비킴의 무대

화려한 뮤지컬 갈라 공연

가을밤의 추억, 뮤직 콘서트

낙조가 아름다운 몽산포해수욕장에 어둠이 내려앉자 잔디광장 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켜졌다.

드디어 고두 캠프의 하이라이트 포드 뮤직 콘서트 시간. 그 첫 무대는 화려한 뮤지컬 갈라 공연으로 〈오페라의 유령〉, 〈노트르담 드 파리〉, 〈위키드〉, 〈황태자 루돌프〉 등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를 들려주었다. 참가자들은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화려한 무대와 감미로운 노래를 감상하며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두 번째는 어쿠스틱 기타 선율과 감미로운 목소리가 매력적인 밴드 '소심한 오빠들'의 무대.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함께 따뜻한 감성의 노래를 들려주어 쌀쌀한 가을밤에 포근한 온기를 선사했다. 포드 뮤직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할 바비킴이 '고래의 꿈'을 부르며 무대에 오르자 환호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골목길', '사랑 그 놈'의 열창이 끝나자 부가킹즈가 무대에 올라 바비킴과 함께 'Tic Tac Toe(틱택톡)'을 불렀다. 차가운 공기조차 뜨겁게 달군 콘서트는 앙코르곡 '물레방아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지만, 참가자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 아쉬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 고두 캠프 협력업체 브랜드와 포드가 러키드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한 고두 캠프의 밤은 한층 무르익어 갔다. 깊어가는 가을, 많은 익스플로러 오너들과 그 가족들에게 잊지 못한 추억을 안겨준 고두 캠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FALL IN THE AUTUMN FESTIVAL

청명한 날씨, 높은 하늘, 살랑살랑 불어오는 다소 쌀쌀한 바람… 가을을 만끽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찰나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싶다면 국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 현장을 찾아보자. 단풍처럼 어여쁜 추억이 마음을 붉게 물들일 테니.

EDITOR 김은성

푸른 가을 하늘, 철새들의 춤,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축제

이때가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대자연의 광경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 철새 도래지인 금강호에 철새들이 돌아오는 모습이다. 서해와 금강을 가르는 금강 하구 둑에는 해마다 먹거리를 찾는 새들이 날아와 황금빛 평야를 수놓는다.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축제장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늦가을의 정취와 철새들이 파란 하늘을 수놓은 풍경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주민과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다채로운 행사를 만들었다니 더욱 기대된다.

360도 회전하는 전망 시설에서 탐망경으로 고니, 물떼새, 말똥가리, 오리, 개리 등 희귀한 철새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다양한 전시관은 철새들의 가치를 공부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에도 좋을 듯. 근사한 분위기의 회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며 철새들의 춤을 바라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철새 그리기 대회는 물론 부엉이 가방고리 만들기와 철새 모양 보석함 만들기, 전통 대나무 활 만들기, 철새 하모니카 만들기, CSI 생태수사대 등의 부스가 운영되니 지루할 틈이 없다. 관광객 대상의 철새 탐조 투어 버스를 운영하니 이용해보길 추천한다.

기간 11월 16일~18일

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문의 041-950-4091, 063-454-5685, http://gmbo.gunsan.go.kr

가을 축제의 터줏대감, 파주장단콩축제

DMZ 청정 환경에서 자란 장단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파주장단콩축제가 올해로 22회를 맞았다. 파주 장단콩은 임진강 쌀, 인삼과 함께 '장단삼백'이라 하여 수라상에 올린 고급 식자재였다. 그만큼 영양도 맛도 특별하다. 축제 기간인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파주 임진각 광장에서 직접 그 맛을 볼 수 있다. 서리태, 백태, 쥐눈이콩, 밤콩 등 9종의 장단콩을 10%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지난 축제에서는 이틀째 되는 날 물량이 동났으니 구매하려면 일찍 방문할 것. 올해 문화관광축제,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된 데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만큼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풍성하다. 꼬마 메주 만들기, 콩 타작, 장단콩 힘자랑대회, 사물놀이, 가요제 등이 임진각 광장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또 무료 셔틀버스, 안내소 증설 등 곳곳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했다. 가을 축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한 파주장단콩축제에서 임금님처럼 맛보고 즐겨보는 건 어떨까.

기간 11월 23일~25일

장소 파주 임진각 광장

문의 031-940-5282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 체험, 양평몽땅구이축제

수확의 계절인 만큼 내 손으로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맛보는 건 어떨까? 9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92일간 진행해 구이구이축제라고도 불리는 '양평몽땅구이축제'는 밤, 고구마, 배추, 무, 장어, 메기, 오리, 돼지 등 양평 수미마을에서 재배한 각종 농산물을 말 그대로 몽땅 구워 먹는 축제다. 체험자는 밭에서 고구마를 캐거나, 들에서 밤을 줍거나, 물가에서 메기와 장어를 잡는데 채집한 농산물은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집에 가져갈 수도 있다. 구이 체험 외에도 찐빵 만들기, 수륙양용마차 탑승, 곤충 채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하루 종일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 도시와 인접한 곳에서 개최되기에 교통이 편하고 가족 단위 참여자가 많은 편이다. 다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기에 인터넷을 통한 예약은 필수다. 혹 몽땅구이축제를 놓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양평 수미마을에서는 365일 매 계절 다른 축제를 진행한다.

기간 9월 2일~12월 2일

장소 수미마을(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531 밤나무숲 자연휴식지 일원)

문의 www.autumnfestival.kr

올가을 인생샷은 이곳에서, 태안 팜파스축제

억새나 갈대와 비슷한 듯하지만, 키가 훨씬 크고 복슬복슬한 꽃이 풍성한 팜파스. 가을에 만개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팜파스는 주로 남미나 뉴질랜드에 분포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식물이다. 태안의 청산수목원은 수목원 한쪽에 팜파스원(園)을 조성했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머금은 팜파스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최대 3m까지 자라는 팜파스 사이에 서 있으면 가을 한가운데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때문에 SNS에는 연일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이 '#가을'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되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사이에서는 웨딩 스냅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팜파스축제는 8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펼쳐지지만, 만개한 팜파스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고 싶다면 11월 초에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3만여 평 규모의 청산수목원에는 팜파스원 외에도 로맨틱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핑크뮬리밭과 밀레의 작품 '이삭 줍는 여인들'을 형상화한 밀레의 시간정원, 고구려의 상징 삼족오를 테마로 한 삼족오 미로 등 볼거리가 많다. 또 봄에는 홍가시나무축제, 여름에는 연꽃축제가 열려 계절에 상관없이 아름다운 수목을 감상할 수 있다.

기간 8월 15일~11월 25일

장소 충청남도 태안군 청산수목원

문의 041-675-0656

우리 땅 끝자락에서 만나요, 제주 최남단방어축제

11월 말에 맛이 절정에 달한다는 방어. 방어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지방이 많아져서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고 식감은 쫀득해진다. 가장 맛있는 방어를 맛보고 싶다면 제주 최남단방어축제 현장을 찾아보자. 추울수록 뱃살이 차지다는 방어가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월동지로 최남단 제주를 택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어업기지 모슬포항이 방어의 주산지이자 축제의 무대다. 11월 29일, 풍어제로 시작되는 축제는 선상낚시 체험, 보말 까기 대회, 방어 맨손 잡기 등 어촌의 생활이 그대로 녹아든 프로그램부터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공연까지 4일간 꽉 채운 스케줄로 쉴 틈 없이 진행된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방어의 맛을 느끼며 준비된 프로그램을 즐기다 보면 늦가을의 찬 바람도 금세 잊게 될 것. 고운 핑크빛의 대방어 속살을 두텁게 썰어 김이나 묵은지에 싸 먹다 보면 계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 모슬포항 일대에는 제주의 특별한 역사를 담은 유물과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으니 한 번쯤 들러보는 것도 좋다.

기간 11월 29일~12월 2일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일대

문의 www.bangeofestival.com

FESTIVAL SEASON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전통을 지켜온 축제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가을이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그중 뉴욕의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와 쾰른 카니발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떠나본다.

EDITOR 이종훈 **COOPERATION** 뉴욕 관광청 한국사무소(nycgo.com), 독일 관광청(www.germany.travel)

수감사절 퍼레이드의 가장 큰 볼거리인 초대형 캐릭터 풍선

수십 개의 머칭 밴드 행렬이 퍼레이드의 흥을 돋운다.

뉴욕 맨해튼,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큰 명절 중 하나로 저녁이면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모여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하며 민요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를 부른다. 가정마다 칠면조 요리와 호박파이를 먹으며, 추수감사절인 목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연휴를 즐긴다.

미국 최대 규모의 추수감사절 축제는 뉴욕에서 열리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Macy's Thanksgiving Day Parade)'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약 3시간 동안 센트럴 파크 웨스트와 77번가에서부터 34번가의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 점까지 진행된다. 뉴 이어 이벤트 다음으로 사람이 많은 행사라 아침 일찍 가야 좋은 자리에서 퍼레이드를 즐길 수 있다.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1920년부터 시작됐는데 백화점 직원들이 어릿광대, 카우보이, 기사 등으로 분장한 뒤 뉴욕 센트럴 파크 동물원에서 빌린 25마리 동물과 장식한 마차, 브라스 밴드를 동원해 시가행진을 한 데서 비롯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매년 행사를 꾸준히 이어갔으며, 점점 발전해 1934년에는 100만 명의 군중이 도로에서 행진을 지켜보았다. TV가 보급된 1950년대부터는 TV 생중계를 통해 미국 전체가 메이시스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지켜보았다. 현재는 40여 가지의 커다란 캐릭터 풍선을 앞세워 8000명의 참석자, 350만 명의 관중과 5000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한 퍼레이드를 펼친다.

오랜 세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의 선두자리를 지켜온 것은 이 퍼레이드의 상징이기도 한 칠면조(Turkey) 모형이다. 퍼레이드 사이사이에는 NYPD 밴드부터 시작해 미국 전역에서 경연을 통해 선발된 머칭 밴드(Marching Band)가 흥겨운 라이브 음악을 선보인다. 그리고 피에로 등 광대(Clown)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흥을 돋운다. 퍼레이드의 가장 큰 구경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초대형 풍선이다. 1927년대부터 미국의 상징적 캐릭터인 고양이 펠릭스, 스누피, 스파이더맨,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뽀빠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풍선으로 제작해 뉴욕 상공에 띄우고 있다. 그 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들이 매년 새롭게 얼굴을 내민다. 올라푸, 헬로우 키티, 피카추, 스폰지밥, 앵그리버드 등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부터 맥도널드의 피에로, 그린자이언트콘의 거인 등 미국을 대표하는 친숙한 브랜드의 트럭이 끌고 가는 퍼레이드 조형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퍼레이드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섹션으로,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클로스, 루돌프 등의 행렬이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다.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추수감사절 주제로 시작해 크리스마스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퍼레이드가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점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인다.

스파이더맨처럼 친숙한 캐릭터가 뉴욕 맨해튼의 하늘을 수놓는다.

별장식의 화려한 황금종을 들고 쾰른 카니발에 참여하는 행렬 © German National Tourist Board

베니스풍 가면을 쓴 광대 © German National Tourist Board

11월 11일에 시작되는 쾰른 카니발은 3개월 동안 화려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독일 쾰른 카니발

독일 '쾰른 카니발(Cologne Carnival)'은 3대 사육제 중 하나에 속하며, 수십 개의 카니발 단체가 참여해 3개월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쾰른 카니발의 시작은 옛날 기독교인이 사순절 금식기에 들어가기 전 맘껏 즐기기 위해 3일간 펼친 사육제(Fasching)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카르네발'이라 불렀는데, 사계절에 계절이 하나 더 있다 해서 3개월간 계속되는 이 축제를 독일 사람들은 '제5의 계절'이라 불렀다. 쾰른 카니발은 원래 유럽 사육제의 전통 속에서 겨울철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 벌인 축제 행사였다. 오늘날 같은 축제 형태를 띤 것은 1823년부터다. 오랜 문헌에서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주신 디오니소스와 농경신 사투르누스를 섬기기 위해 포도주, 노래와 춤을 곁들여 흥겨운 봄의 향연을 즐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게르만인은 생활 방식에 따른 여러 신에게 경외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한겨울 모진 추위를 관장하는 악령을 몰아내기 위해 겨울 마지막 날에 성대한 제연을 벌였다고 알려졌다.

중세에 이르러 지나치게 방탕해지자 관이나 교회에서 무절제한 그들을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법령과 각종 조치를 마련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카니발을 금지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열기를 더해갔다. 18세기 들어 카니발은 거리로 확산된다. 여기에는 이탈리아의 베니스풍 가면과 가장무도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향연이 귀족과 부유층에 제한된 것과 마찬가지로 쾰른의 최초 가면 및 가장무도회 역시 1736년 노이막트 인근의 한 귀족 가문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졌다. 50년이 지난 뒤 쾰른은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가지만 쾰른 주민들의 오랜 놀이문화를 막지는 못했다.

카니발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시작된다. 이는 11이라는 숫자가 카니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대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 시간에 쾰른의 알트마르크트에서 광대 복장을 한 시민들이 모여 '쾰른이여, 영원하라'는 의미를 지닌 "쾰레 알라프(Kolle Alaaf)"라고 외치며 카니발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겨울이 끝날 때까지 주말에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다 사순절이 있는 주간에 막을 내린다. 축제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거리에서 춤과 음악을 즐긴다. 쾰른 카니발 기간 중에서도 '여자들의 목요일(카니발의 마지막 둘째 주 목요일)'과 '장미의 월요일(카니발의 마지막 월요일)'이 가장 화려하다. '여자들의 목요일'은 집안일에 지친 여자들이 거리에 무리 지어 다니며 자유를 만끽하는 여성 해방일로 유명하며, 여자들이 길 가는 남자들의 넥타이를 가위로 잘라내는 이벤트를 즐긴다. '장미의 월요일'에는 카니발의 대미를 장식하는 화려한 거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퍼레이드 참가자와 관광객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긴다. 쾰른 카니발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 행사이자 쾰른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큰 행사다.

CONVERGENCE & UPGRADE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나올 기술은 다 나왔다지만, 기술의 끝은 없다. 융합하고 개선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

WRITER 임유신(탑기어 〉 편집장)

세상에 새로운 기술은 없다고들 말한다. 나올 기술은 이미 다 나왔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융합과 개선 덕분이다. 이미 나온 기술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하거나 여러 기술을 합쳐 새로운 효과를 내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다. 점점 편리하고 안전한 신기술을 선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나온 기술의 확장판이다. 누가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적 시도로 더 나은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빛을 감지해 비추는 헤드램프

8단 자동변속기로 연비 향상

첨단 기술의 집합체 '코-파일럿360'

포드는 신기술 면에서 앞서 있다. 100년 넘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자동차사에 길이 남을 신기술을 선보였고, 기술의 포화 상태라는 요즘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내놓는다. 포드의 신기술도 융합과 개선에 기반을 둔다. 이전보다 나은 기술을 목표로 발전해나간다. 헤드램프를 보자. 1968년형 에스코트, 2003년형 포커스와 비교하면 비추는 거리만 해도 250m, 350m, 500m로 길어졌다. 기능 또한 놀라울 정도로 똑똑해졌다. 신형 포커스는 최신 헤드램프 기술을 도입했다. 도로 표지판과 차선을 인식해 그것에 맞게 헤드램프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회전 교차로 신호를 읽으면 원형으로 돌아 나가는 도로 구조에 맞게 빛을 비춘다. 도로 상태는 물론 보행자나 자전거 등도 쉽게 볼 수 있다. 차선을 실시간으로 읽고 분석하기에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돌리기 전에 미리 도로 변화를 감지해 빛을 비춘다. 이런 신기술은 끊임없는 기술 개선의 결과다.

연비 향상 기술은 자동차 회사에 주어진 영원한 과제다. 공학 법칙을 적용하면 더 나아질 수 없어 보이는데도 연비는 꾸준히 높아진다. 연비 향상은 여러 기능을 조합해 이뤄진다. 우선 네바퀴굴림은 평상시 앞바퀴굴림으로 작동하고 필요할 때만 네 바퀴를 굴린다. 8단 자동변속기는 동력을 세분화해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이 밖에 트랜스미션 웜업, 오토 스타트 · 스톱, 감속 시 연료 컷, 배기가스 재순환 등을 통해 연료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

요즘 주목받는 운전자 보조 기능도 그동안 나온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포드는 이를 한데 모아 '코-파일럿360'이라는 시스템으로 선보였다. 구성은 보행자 감지 기능을 포함하는 자동 긴급 제동, 후측방 경고 기능을 포함하는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오토 하이빔, 후방 카메라다. 이 기능은 기본으로 넣고, 스타트 · 스톱과 차선 유지 기능을 포함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 회피 스티어링 등 고급 기술을 추가해 안전성을 한층 높인다. 안전운전은 물론 편안하고 쾌적한 운전을 돕는다.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를 180도로 키워 장애물 감지 범위를 넓힌 와이드 뷰 후방 카메라

보행자와 자전거를 감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기능

자동으로 속도,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개별 기능의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후방 카메라는 주차할 때 뒤쪽 장애물 유무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포드가 선보인 와이드 뷰 후방 카메라는 카메라가 비추는 각도를 180도로 키워 장애물 감지 범위를 넓혔다. 레이더 센서까지 더해 후방에 지나가는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충돌을 피한다.

기술 개선의 혜택은 자동차와 운전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포드가 펼치는 '도로 함께 쓰기' 캠페인은 자전거 이용 확대와 도로에서 안전한 공존이 목적이다. 자전거 이용이 늘면 오염 물질 배출도 줄고 도로도 덜 혼잡해진다. 서로 다른 이동 수단이 도로에서 함께하려면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포드의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은 보행자와 자전거도 감지한다. 자전거와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를 보내고,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충돌을 막는다.

유령 정체는 고속도로처럼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곳에서 발생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면 뒤따르는 차들이 순차적으로 속도가 줄고, 뒤로 갈수록 속도 감소 폭이 커서 정체를 유발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으로 속도,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포드의 연구에 따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유령 정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레이더를 기반으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흐름을 따르기 때문이다.

융합과 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동차는 전기차다. 형태는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와 다를 바 없지만, 전기모터라는 새로운 동력원과 융합했다. 성능 · 효율 · 정숙성 · 친환경 면에서 내연기관차를 앞지를 정도로 개선 효과가 크다. 전기차는 앞으로 발전할 자율주행차의 기반을 이뤄, 자동차 자체는 물론 이동 환경에도 획기적 변화를 일으킨다. 포드는 2022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라인업을 40개로 늘릴 계획이다. 얼마 전에는 머스탱과 닮은 순수 전기차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미래 자동차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금 나온 기술만 봐서는 더 새로운 무엇이 나오겠냐 싶지만, 융합과 개선을 통해 상상하지 못한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포드는 융합과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현재보다 나아지기 위한 꾸준한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차종은 무엇일까?
픽업은 희소가치가 높은 데다 장점도 많고 개성도 강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유력한 후보다.
포드 레인저가 새로운 트렌드 변화를 예고한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RANGER TREND REPORT

짐을 외부에 실을 수 있다는 점이 픽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픽업 한 대만 있으면 아웃도어 활동의 수준이 달라진다.

적재함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신조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이나 SNS 발달로 네트워크상에서 소통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창의적이고 간략한 표현이 늘어난 것. 한글 파괴라는 비난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신조어는 현재 사회 분위기나 유행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다.

자동차 시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차종은 무엇일까? 요즘 대세는 SUV인데, SUV보다 한발 앞서 유행을 이끄는 차가 있으니 바로 픽업이다. 국내는 픽업 시장이 워낙 작아 이 말이 와 닿지 않겠지만, 픽업이 대중화된 곳에서 픽업의 존재감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크다. 요즘 시대상을 반영한 신조어와 짝을 맞춰 분석하면 픽업의 트렌드 리더 자격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가심비.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을 나타낸다면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나타낸다. 픽업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들인 돈 이상으로 값어치를 해내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의 줄임말인데, 픽업 한 대만 있으면 어지간한 일은 다 해낼 수 있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휘소가치'는 휘발성과 희소가치의 합성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무의미한 소비 같지만, 자신에게는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픽업이 낯설고 시장에 맞지 않는 차로 보일지 모르지만, 픽업의 가치와 매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휘소가치'가 매우 큰 차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획일화되고 차를 고를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트렌드라고 해봐야 세계시장에 통용되는 일반적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종이 등장해 판을 뒤엎어야 한다. 유력한 후보는 픽업이다. 낯선 차종이고 시장 자체가 작고 장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다. 거의 새롭게 시작하는 차종인 만큼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픽업이 몰고 올 트렌드 변화는 무엇일까? 오랜 전통, 높은 완성도, 다재다능한 기능, 적절한 성능, 친숙한 디자인 등 픽업 중에서 트렌드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차로 포드 레인저를 꼽을 수 있다.

레인저가 몰고 올 트렌드 첫 번째, 터프한 차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다. 자동차는 디자인이나 분위기에 따라 남성적 차와 여성적 차로 구분한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픽업은 중성적 이미지를 풍기지만, 레인저는 강인한 디자인과 강한 성능이 어우러져 픽업 중에서도 남성적 이미지가 강하다. '상남자의 차'라는 별칭이 꼭 따라붙는다. 요즘은 희소하고 개성 강한 차를 찾는 수요가 높다. 터프한 분위기를 제대로 풍기는 차를 찾아보기 힘들기에, 레인저가 등장하면 터프한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단단한 차체와 험로 주파력을 갖춰 가지 못 하는 길이 없다.

레인저는 포드 픽업의 정수가 담긴, 중형 픽업의 대명사다.

실내는 여느 SUV와 다를 바 없다. 픽업이라는 사실은 외부에서만 드러날 뿐.

두 번째, 아웃도어 활동의 급이 달라진다. 미니밴과 SUV가 아웃도어의 중심축을 이루는데, 픽업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한다. 짐을 내부에 싣느냐 외부에 싣느냐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레인저 역시 5인승에 지붕이 없는 적재함을 갖췄다. 싣는 짐의 제약이 없고 오프로드 성능도 출중해서 다니지 못하는 길이 없다. 아웃도어 활동도 일상화해서 뻔해지면 더 큰 자극과 높은 수준의 활동을 원하게 된다. 그런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차가 레인저다. 탐험가 수준으로 누비고 다니는 수준 높은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DIY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 국내에도 공방에서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취미 생활이 널리 퍼지는 중이다. 최근에는 대형 DIY 매장이 생기면서 DIY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DIY의 핵심은 재료 운반이다. 큰 재료도 자유롭게 싣고 다닐 수 있어야 DIY 활동 범위도 넓어진다. 배송이 발달했지만 큰 짐을 배달해서 받기는 쉽지 않다. 레인저 한 대만 있다면 운반 제약이 사라져 더 적극적으로 DIY 활동을 할 수 있다. DIY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DIY 활동이 가능해진다.

네 번째, 탈도시 욕구에 불을 지핀다. 전원생활은 도시생활에 찌든 이들의 로망이다. 실제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껴 교외로 이동하는 사람도 꽤 된다. 전원생활의 필수품은 이동수단이다. 단순히 오가는 데 충실한 차로는 부족하다. 전원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험한 길도 문제없이 다니고 잡다한 기구나 짐도 거침없이 실어야 한다. 단순히 이동할 때는 승용차처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에 레인저만큼 잘 어울리는 차도 없다.

다섯 번째, 멋의 개념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스포츠카나 매끈한 세단을 멋있는 차로 꼽는다. 픽업은 짐 싣는 차로 여겨서 멋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레인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픽업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멋진 차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디자인은 멋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분위기나 감성 또는 특성에서도 멋이 우러난다. 진정한 멋은 외모가 아닌 능력에서 나온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레인저가 풍기는 멋은 멋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다섯 가지 외에도 레인저가 몰고 올 트렌드 변화는 많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레인저의 장점은 고스란히 새로운 트렌드로 이어진다. '갓○○'은 훌륭한 대상을 일컫는 말이다. 레인저는 다재다능하고 큰 만족을 안겨준다. 갓레인저라 불러도 손색없다. 비슷한 말로 '인생○○'이 있다. 인생에서 최고였던 무엇인가를 지칭한다. 레인저 트렌드를 경험하면 인생 자동차, 인생픽업으로 주저 없이 레인저를 꼽게 된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F-150 FACT CHECK

환상을 가질 필요도, 일부러 칭찬할 필요도 없다. 드러난 사실만 확인해도 F-150의 진가가 드러난다.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분야마다 최고로 인정받는 차들이 있다. 픽업 하면 당연히 포드 F-150이다. 픽업에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F-150이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라는 사실 정도는 안다. 역사와 전통도 오래되고 한 해 판매 대수도 엄청난 대단한 모델이지만, 국내에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픽업 시장이 워낙 작은 데다 판매 모델도 거의 없어서다. 희소하고 개성 강한 차를 찾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픽업에 대한 관심도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다. 픽업을 알려면 F-150이 어떤 차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F-150을 속속들이 알고 나면 픽업 세상에 대한 눈이 뜨인다. F-150에 관한 객관적 사실만 확인해도 F-150이 어떤 차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F-150은 다양한 모델이 나온다. 랩터는 고성능 모델에 붙는 이름이다.

F-150은 모델 시리즈 중 하나다

F-150은 F-시리즈 중 하나다. F-시리즈는 픽업에서 트럭까지 아우른다. 가장 아래 F-150이 있고 100단위로 높아져서 가장 위에 750이 자리 잡는다. F-150이 F-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고 승용차 성격이 강하다.

13세대 70년 역사

F-150의 역사는 곧 F-시리즈의 역사다. 1948년에 처음 나왔으니 무려 70년에 이른다. 모델 T 픽업까지 연결 지으면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F-시리즈는 크기에 따라 F1부터 F8까지 나뉘었다. 1953년 2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F1은 F-100, F2와 F3은 F-250, F4는 F-350으로 바뀌는 등 100단위 숫자로 바뀌었다. 150이라는 숫자는 1975년 처음 쓰였다. F-100과 F-250 사이를 메우는 모델로 F-150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연간 미국 시장 판매량 90만 대

F-시리즈의 2017년 미국 시장 판매량은 90만 대에 이른다. 포드 SUV 판매량이 80여만 대였으니 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SUV보다 많이 팔렸다. 올해에도 9월까지 판매량은 68만여 대. 35초에 한 대씩 팔린 셈이다. 최고 기록은 2004년에 세운 94만여 대. F-시리즈 중에서도 F-150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F-150의 기여도가 꽤 높다.

미국 판매 순위 41년째 1등

1975년 F-150이 라인업에 추가된 후 그해에만 전체 판매량 3분의 1을 F-150이 차지했다. F-150이 인기를 끌면서 F-시리즈는 이듬해부터 미국 트럭 시장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 1위를 33년째 지키고 있다. 참고로, 승용차 부문 판매 1위 대수는 F-시리즈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알파뉴메릭 대표 모델이다

알파뉴메릭은 알파벳과 숫자를 합친 이름이다. 자동차 이름을 짓는 방법 중 하나고, 차의 크기와 성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유용하다. 정체성을 강조하는 고급차 브랜드가 주로 알파뉴메릭 이름을 사용한다. 디자인은 물론 이름까지 일관성을 드러낼 수 있어서다. F-시리즈는 1948년 등장할 때부터 알파뉴메릭 이름을 사용했다. 해마다 판매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인지도는 물론 판매량에서도 알파뉴메릭의 대표 모델이라 할 만하다.

픽업이지만 고성능 모델도 있다

F-150은 그저 실용성만 추구하는 픽업이 아니다. 픽업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F-150을 승용차처럼 여긴다. 업무용, 레저용, 취미용, 가정용 등 다양한 용도로 탄다. 고성능 모델도 빼놓을 수 없다. 픽업에 고성능이라니 믿기지 않겠지만, 그만큼 F-150은 다양성에서 앞서간다. 이미 1980년대부터 F-150 SVT라는 고성능 모델을 선보였다. 요즘에는 랩터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3.5L 트윈터보 에코부스트 엔진은 450마력과 70.5kg · m에 이르는 강력한 힘을 낸다. 이전에는 V8 6.2L 엔진이었는데 다운사이징을 거치면서 크기는 줄고 힘은 더욱 키웠다.

지형을 가리지 않고 고성능 파워를 내뿜는 진정한 파워 머신이다.

전체 판매량 무게는 항공모함 680대분

1948년 이후 F-시리즈 판매량은 대략 3500만 대 이상이다. 차 한 대당 무게를 1800kg으로 잡으면 지금까지 팔린 차의 무게 합은 6350만 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192개 또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680대 분량이다. 1열로 세우면 지구를 세 바퀴 이상 돌 수 있다.

F-150은 거대하다

F-150은 보디 스타일과 적재함 길이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나온다. 대략 크기는 길이 5~6m대, 폭 2m 이상, 높이는 1.9m대, 휠베이스는 3m 이상이다. 미니밴보다 훨씬 크다. 큰 크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장점 또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F-150도 디젤 모델이 있다

미국은 트럭도 가솔린엔진을 쓴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대체로 맞는 말이다. F-150도 최근까지 가솔린엔진만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디젤엔진을 추가했다. 파워 스트로크라 불리는 디젤엔진은 V6 3.0L이고 최고출력은 250마력, 최대토크는 60.9kg · m에 이른다. 복합 연비는 1L에 10.6km. 2020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온다는 소문이 들린다.

2019 F-150 리미티드

2019년형 F-150 리미티드 트림은 450마력 3.5L 에코부스트 V6 엔진을 얹어 동급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낸다. 프로 트레일러 백업 어시스트 기능은 트레일러 주차를 수월하게 하도록 돕는다. 360도 카메라와 10개 모바일 기기를 연결 기능을 포함하는 포드패스 등 각종 고급 기능도 풍부하게 갖췄다. 실내는 고급 소재를 써서 우아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파워를 중시하면서 고급스럽고 편안한 픽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모델이다.

2019 F-150 랩터

2019년형 랩터는 오프로드 성능 향상이 두드러진다. 뉴 트레일 컨트롤은 크루즈 컨트롤과 유사한 기능이다. 오프로드에서 이 기능을 작동하면, 힘과 제동을 바퀴별로 제어해 험로를 헤쳐 나간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방향만 조절하면 된다. 폭스 레이싱 쇼크 라이브 밸브 기술은 실시간으로 댐핑값을 조절해 차의 상태에 맞게 서스펜션을 최적화한다. 안락성과 핸들링 개선은 물론 고속으로 오프로드를 공략할 때도 유리하다. 오프로드 환경에 맞춘 레카로 시트도 눈여겨볼 변화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픽업의 거주성은 SUV 못지않다. 다재다능한 실력을 여럿이 함께 누릴 수 있다.

취미 생활의 끝판왕이 요트라면, 아웃도어 라이프의 종착지는 픽업이다.

REPEAT VICTORY

포드 GT 헤리티지 에디션은 1968년과 1969년, 같은 새시로 연달아 르망에서 우승하는 진기록을 세운 GT40 경주차를 기념한다. 걸프오일 리버리가 당시 명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WRITER 임유신(탑기어 편집장)

경주차의 다양한 매력 중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요소는 페인트 색상이다. 수십 대가 한꺼번에 달리는 경주를 본 후라면 '파란 차가 잘 달리던데', '노란 차가 추월을 잘했어'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 마련이다. 그다음엔 모양과 이름을 생각해낸다. 전적이 화려한 차라면 드라이버 이름과 우승한 경주도 인상에 남는다.

경주차인 만큼 빨리 달리는 데에만 주력하는 듯하지만, 사실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뇌리에 가장 먼저 박히는 색상에 공을 들인다. 경주차에 적용하는 색상과 데칼 등을 합쳐 '리버리(livery)'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는 제복이나 특수한 복장이다. 모터스포츠에서는 팀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리버리 역사는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다. 특정 국가 또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색이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며 경주차의 특색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국가 색상을 구분했지만 1960년대 이후 스폰서가 제도화되면서 국가 색상 개념은 옅어지고 스폰서 기업의 특색을 살린 리버리가 퍼져나갔다.

스폰서 리버리로 가장 유명한 기업은 걸프오일이다. 1930년대부터 모터스포츠에 발을 담갔고, 포드를 비롯한 유수 브랜드의 스폰서를 맡았다. 걸프오일은 1960년대 하늘색과 주황색을 조합한 리버리를 선보였다. 모터스포츠가 흥할 당시 걸출한 경주차를 여럿 배출하면서 걸프 레이싱 리버리는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렸다. 바탕색은 하늘색인데 아예 '걸프 레이싱 블루'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지금도 걸프오일 리버리는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전통 있고 유명한 리버리로 인정받는다.

최근 선보인 포드 GT 헤리티지 에디션은 걸프 레이싱 리버리로 치장했다. 1960년대 르망 24시에서 활약한 GT40 경주차를 기념하는 모델이다. 당시 GT40은 1966년부터 1969년까지 4년 연속 르망 24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66년에는 6년 연속 우승해온 페라리를 꺾고 1, 2, 3위를 모두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헤리티지 에디션은 르망 24시 1968년 우승 50주년과 1969년 우승을 기념한다. 당시 경주차에 입힌 걸프 레이싱 리버리를 기념하는 의미도 담았다. 1968년 경주차는 섀시 번호 1075로 불리는데, 같은 섀시로 르망 24시간에서 두 해 연달아 우승한 흔치 않은 기록을 세웠다. 이번 헤리티지 에디션은 1075 섀시 2년 연속 우승을 기념해 2년 계획으로 나온다. 2019년형 모델에는 1968년 경주차에 붙어 있던 엔트리 넘버 9를 보닛과 도어에 붙이는 패키지를 마련했다. 2020년형 모델에는 1969년 경주차와 같은 숫자 6을 붙인다.

하늘색과 주황색이 결합한 걸프오일 리버리는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색상 조합이다.

스페셜 모델인 만큼 고급 소재와 개성 넘치는 요소를 듬뿍 담았다.

과거 경주차를 기념하지만, 요소는 현대적이다. A필러에는 카본파이버를 눈에 띄도록 드러냈다. 휠은 20인치 원피스 단조 알루미늄이고, 고광택 스테인리스 블랙 너트를 끼웠다. 캘리퍼는 리버리 색상을 상징하는 주황색으로 칠했고, 미러 캡은 은색으로 포인트를 줬다. 실내는 검은색 알칸타라로 시트와 필러, 헤드라이너, 스티어링 휠 등을 감쌌다. 특히 시트와 스티어링 휠에는 걸프 레이싱 리버리를 상징하는 색인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스티치를 박았다. 시트 엠보싱은 1968년 르망 우승 경주차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고, 고광택 스테인리스 장식을 곳곳에 달아 독특한 멋을 살렸다. 이전에 나온 헤리티지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시리얼 넘버 판을 매트와 도어 실, 센터콘솔 등 곳곳에 붙여 특별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 GT와 차별화한 경주차 감성을 물씬 풍긴다.

포드 글로벌 사업부 대표 조 하인릭은 헤리티지 에디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여러 관점에서 걸프오일 리버리는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색채 조합이에요. 1968년 GT40 경주차는 당시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우리는 우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헤리티지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걸프오일과 함께해 더욱 의미가 큽니다." 걸프오일 측도 자신들이 모터스포츠에서 전설적인 스폰서로 기억되고 큰 공을 세운 공로를 포드로 돌린다.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부를 펼치고 최고 기량을 발휘한 경주차를 꼽으라면 GT40을 들 수 있다. 예부터 지금까지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스폰서 리버리는 단연 걸프오일이다. 두 최고가 만나 1960년대를 풍미하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명성 그대로 두 최고가 다시 만났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CAMPING STORY

**지난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익스플로러 광고에서 활약한 배우 데이비드 맥기니스.
그가 다시 한번 익스플로러의 핸들을 잡았다. 1년 사이 눈빛과 미소가 더욱 깊어진 그와 익스플로러의 만남은
가을 하늘과 단풍만큼 아름다운 조화였다.**

EDITOR 김은성

지난 9월 말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정의로운 미군 소령 '카일'로 출연해 진중하고 다정다감한 매력을 선보인 데이비드 맥기니스. 드라마 속 주인공 유진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그가 이번 익스플로러 새 광고에서는 익스플로러의 오너이자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변신했다.

광고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익스플로러를 타고 캠핑을 떠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익스플로러의 성능에 데이비드 맥기니스의 매력을 적절하게 섞은 네 가지 사자성어로 제작한 캠핑백서가 이번 광고의 테마다.

캠핑백서 하나, 캠핑은 '다다익선'. 함께 떠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행은 즐거워질 테니까. 네 명의 가족은 애완견을 데리고 캠핑을 떠난다. 7인승 대형 익스플로러라면 가능하다. 그것도 널찍한 좌석에서 편안하게.

캠핑백서 둘, 거침없는 '파죽지세'. 어떤 길에서도 힘차게 쌩쌩 달려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가족을 태운 익스플로러는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으로 해안도로와 산속 캠핑지까지 단번에 달려간다. 혹시 미끄러질까, 흙에 빠질까 하는 걱정은 필요 없다.

캠핑백서 셋, 남다른 '다재다능'. 다이얼 하나로 진흙길부터 자갈길, 눈길까지 어떤 길도 편안하게. 어떤 험로가 나타나도 길의 컨디션에 따라 지형 관리 시스템(TMS) 다이얼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나뭇가지가 깔린 산길도, 포장되어 있지 않은 들판도 안정적으로 지나치며 목적지에 도착한 가족, 본격적인 캠핑을 시작한다.

캠핑백서 넷, 캠핑의 절정 '화룡점정'. 때론 아빠의 요리 공간이 되고, 때론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신해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줄 테니까. 익스플로러는 3열 자동 폴딩 시트로 넓은 공간을 만들어 자유로운 캠핑을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휴식처로서 안락함까지 경험할 수 있다. 가족은 시트가 접힌 뒷좌석에 누워 별을 바라보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남은 시간을 보낸다. 익스플로러와 함께해 더욱 만족스러운 캠핑이다.

맥기니스는 익스플로러의 모든 기능을 여유롭게 활용하며 운전대를 잡은 모습뿐 아니라 캠핑의 꽃 바비큐를 직접 하는 모습까지, 캠핑을 이끄는 다정한 아빠의 이미지를 능숙하게 표현했다. 여러 국적의 군인, 악역, 아버지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 데에서 나온 안정적인 연기력이다. 거기에 세련된 스타일과 카리스마까지 겸비해 스타일리시함과 안전성을 갖춘 익스플로러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데이비드 맥기니스는 올 12월 왕대륙 주연의 중국 영화 〈더 루키스〉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에는 영화 〈미스터 주(가제)〉로 국내에 돌아올 예정이다.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한 꺼풀씩 다른 매력을 선보여온 그. 그 모습이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해온 익스플로러와 닮았기에 이토록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광고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내년, 또 먼 훗날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지 자못 기대된다.

SAFE DRIVING WITH LIMETUBE

교통에 대한 안전은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아이들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라임튜브와 포드가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쳤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른 습관과 생명 존중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운전은 어린 시절부터 직접 몸으로 익히고 습관화해야 한다. 안전한 운전 문화 확립을 위해 인기 유튜브 채널인 라임튜브와 포드가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콘텐츠 플랫폼의 대세는 단연 유튜브다.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 유아부터 초등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사랑받으며 15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여덟 살 길라임 양의 라임튜브는 대세 중의 대세. 지난 5월, 안전한 운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포드와 라임튜브가 함께한 '안전운전 캠페인' 콘텐츠는 13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큰 관심과 사랑을 안전운전 정착으로 이끌기 위해 라임튜브와 포드가 다시 한번 뭉쳤다.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익스플로러를 타고 캠핑장으로 가을맞이 여행을 떠나는 캠페인 영상을 완성한 것. 이번 안전운전 캠페인 영상에서는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포드의 특별한 '뒷좌석 팽창형 안전벨트'를 설명해주는 포드 박사가 등장한다. 포드 박스는 바로 포드자동차 정유훈 마스터 테크니션.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포드 박사 촬영을 진행하는 포드자동차 분당 전시장을 찾았다. 파란 포드 로고가 시선을 끄는 하얀 가운을 입은 포드 박사가 한창 촬영 중이었다. 촬영은 전직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이자 영상감독인 라임 양 아빠 길기홍 씨와 엄마 전연숙 씨가 맡았다. 포드 박사가 설명하는 익스플로러의 '뒷좌석 팽창형 안전벨트'는 안전벨트와 충돌 시 부풀어 오르는 에어백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포드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기술이다. 이 특별한 기술 설명과 함께 라임 양이 안전벨트 매는 장면을 보여주며 사고 시 부풀어 오른다는 점을 CG로 표현. 안전운전 캠페인 영상에서는 라임 양 가족이 익스플로러와 함께 캠핑장 가는 길에 발생하는 차선 이탈, 끼어들기, 사각지대 충돌 위험을 방지하는 포드의 유용한 운전자 보조 기술에 대해 알려준다.

"아이와 동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 중 주의가 산만해지죠. 안전한 주행을 돕는 운전자 보조 기술 중 사각지대의 충돌을 경고하는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및 주행 차선을 벗어나면 진동을 통해 운전자가 차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면 커피잔 모양 경고등이 계기반에 표시되며 경고음을 울려 위험을 방지하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길기홍 씨는 촬영을 통해 접한 익스플로러의 다양한 기능 중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앞유리창에 경고등 점멸과 경고음으로 알려주고 브레이크 감도를 높여 제동력을 극대화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가장 좋았다고 덧붙였다.

"포드 자동차는 힘이 정말 좋아요. 짱짱하죠. 익스플로러는 7인승의 큰 차체임에도 경쾌한 주행 감각과 엔진 소음이 적어 실내 공간이 조용해 드라이브의 묘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라임이가 좋아하는 자전거, 킥보드, 촬영장비 등으로 항상 짐이 많은데 적재 공간은 물론 실내 공간도 넓어 좋더라고요. 라임이는 뒷좌석을 비밀 공간으로 생각해 숨는 걸 좋아합니다. 캠핑장에서 차박할 때, 3열 자동 폴드 버튼만 누르면 평평하게 접혀 편안하게 누워 놀기도 하고요. 익스플로러는 라임이에게 자동차는 이동수단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게 했어요."

안전운전 캠페인 촬영을 통해 라임이는 이제 스스로 뒷좌석에 타고, 안전벨트도 챙겨 맨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라임튜브와 포드가 완성한 안전운전 캠페인 영상은 현재 13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유튜브에서 귀여운 라임이가 전하는 안전운전 캠페인 영상을 확인해보자.

키즈 TOP 크리에이터 라임튜브

수많은 유튜브 채널 중 가장 인기 있고, 미래 영향력을 발휘할 유튜버는 바로 '라임튜브'의 길라임 양이다. 꼬꼬마 유아들부터 초등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이제는 그들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130만 이상의 두터운 구독자를 자랑한다. '라임튜브'와 포드가 함께 완성한 1차 '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 영상과 이번 '안전운전 캠페인' 영상은 각각 130만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아이돌 스타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CITING DRIVING

스포츠카는 서킷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더욱 강력한 힘과 폭발적 역동성으로 아메리카 머슬카의 진수를 보여주는 2018 뉴 머스탱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머스탱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Mustang Driving Experience)' 현장 속으로.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강력한 배기음과 역동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 특유의 포니 엠블럼까지, 스포츠카의 매력을 두루 갖춘 2018 뉴 머스탱. 진화를 거듭하며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6세대 머스탱의 진면모를 확인하는 '머스탱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Mustang Driving Experience)'가 지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인제스피디움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2018 뉴 머스탱에 직접 승차해 다양한 주행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2018 뉴 머스탱 구입 고객과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 머스탱 동호회 및 미디어 관계자를 포함한 300여 명이 참석했다.

6월 7일 오전, '머스탱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위해 인제스피디움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한자리에 모인 근육질의 머스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먼저 2018 뉴 머스탱의 특징과 이번 행사의 취지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오전과 오후에 치러진 행사에는 10명씩 3그룹으로 나뉘어 서킷 주행과 제로백 테스트, 짐카나 코스, 서킷 택시 드라이빙 프로그램에 차례대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인제스피디움의 서킷 주행 프로그램으로 헬멧을 착용한 뒤 인스트럭터와 함께 5.0 GT와 2.3 에코부스트에 탑승해 전문가의 드라이빙 스킬과 스포츠카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체험이다. 차량 4대가 줄지어 서킷을 질주했다. 고속 회전 시 뒷바퀴가 밀리는 오버스티어 현상을 극복하는 2018 뉴 머스탱의 안정적 주행성을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 춘천 전시장을 방문했다가 참가하게 됐다는 유지현 씨는 "서킷 주행은 처음인데, 으르렁거리는 5.0 GT의 배기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서킷을 질주하는 기분이 정말 환상적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두 번째는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제로백 테스트. 291마력의 2.3 에코부스트와 446마력의 5.0 GT를 각각 한 번씩 탑승해 두 모델의 차이점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모드로 설정한 차량의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 그 성능을 확인했다. 2.3 에코부스트는 부드럽게 느껴지고, 5.0 GT는 슈퍼카답게 가속페달을 밟자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치고 나가며 넘치는 힘을 자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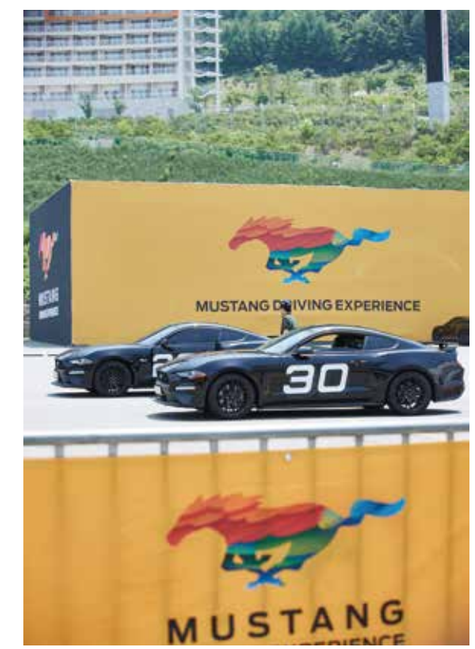
세 번째 프로그램은 짐카나다. 서킷의 축소판인 짐카나는 콘과 콘 사이를 S자로 통과해 정해진 위치에서 정확히 멈춰야 한다. 머스탱은 민첩한 핸들링과 가속력으로 신속하게 S구간을 빠르게 치고 내달렸다. 특히 가속 후 정확한 제동력이 돋보였다. 짐카나는 총 세 번 이루어지는데 두 번은 연습 코스이며, 마지막 한 번은 참가자들의 랩타임을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지급해 참가자들의 승부욕을 불러일으켰다. 랩타임 29.88초를 기록한 김영호 씨는 "가속과 제동을 빠르게 반복해도 휘청거리지 않고 승차감이 탁월했어요. 서스펜션이 좋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라며 친구와 함께 이번 행사에 참가했는데 첫 스포츠카로 제격이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 서킷 택시 드라이빙은 전문 레이서와 함께 조수석에 앉아 2랩을 도는 프로그램이다. 전문 레이서의 뛰어난 운전 솜씨를 감상하며 편안하게 앉아 드라이빙의 묘미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남편과 함께 참가한 전대순 씨는 "멋진 디자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지금껏 보지 못한 외관 디자인에 가슴이 떨렸답니다. 세단보다 편안한 승차감 또한 인상적입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는 시상식이 이어졌다. 1등은 짐카나 랩타임 27.69초를 기록한 장석원 씨가 차지했다. 사전 예약을 통해 GT를 구입한 머스탱 오너인 그는 자동차와 운전을 좋아해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고. "전문 레이서들의 드라이빙 스킬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더 짜릿했어요. 동급 최강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5.0 GT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유익한 체험 행사를 마련해준 포드자동차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맛있는 BBQ 플레이트로 점심식사를 즐긴 참가자들은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머스탱 드리프트 퍼포먼스를 감상했다. 포효하는 5.0 GT가 강렬한 드리프트를 과시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날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포드는 유익한 행사를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도록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번 '머스탱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참가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포드는 앞으로도 고객이 참여해 포드 라인업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GOOD CORPORATE CITIZEN

**포드자동차 창업자 헨리 포드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자 1936년에 포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후원을 주축으로 공공복지를 지원하는 포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포드코리아 역시 17년째 한국내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DITOR 김민정

포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Ford Driving Skills For Life)

포드 환경 지원 프로그램(Ford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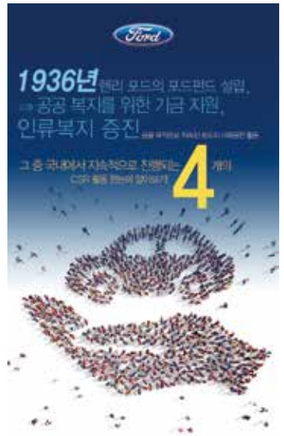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Ford Internship Training Project)

포드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Ford Global Month of Caring)

포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발전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진정성과 철학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포드자동차가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데에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영향도 크다. 포드코리아 또한 환경, 문화, 봉사 등 다방면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 활동은 '포드 환경 지원 프로그램(Ford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Grants)'과 '포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Ford Driving Skills For Life, DSFL)',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위시베어 프로젝트'다.

안전 운전 교육 '포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

자동차 브랜드로서 올바른 안전운전 문화 확립을 위해 포드코리아는 '포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Ford Driving Skills For Life, 이하 DSFL)'라는 안전 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진행한 DSFL에는 초보 운전자는 물론 능숙한 운전자 150명이 참석해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실제 도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 운전 기술과 통합적인 안전 운전 방법을 직접 포드 차량에 탑승해 체험했다. DSFL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한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름다운재단을 만난 '포드 환경 지원 프로그램'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포드코리아는 2002년부터 국내 생태계 및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포드 환경 지원 프로그램(Ford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18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특히 비영리 공익단체인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약 2100만 원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112개 단체에 약 6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 문화유산 보호 및 지역사회 복원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실천해왔다. 지난 10월 30일에 진행한 '포드 그랜츠 나잇(Ford Grants Nights)'에서는 '포드 그랜츠'에 선정된 환경보호 단체의 활동 결과를 살펴보고, 환경운동 전문가 및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포드코리아는 2013년부터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미래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Ford Internship Training Project)'을 진행하고 있다. 선인모터스, 프리미어모터스 등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사와 함께한 '2018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동차 관련 대학 기관은 MOU를 체결한 기존 세 개 대학을 비롯해 일곱 개 대학이 추가됐다. 각 대학에서 선발한 학생들은 2019년 졸업 예정자로 포드 서비스센터에서 포드 전문 기술자로서 필요한 주요 기술 교육을 받으며 현장 실습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추후 장학금을 지원,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펼치는 '포드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

9월은 전 세계 50개 국가의 포드 임직원들이 다양한 자원봉사를 펼치는 '포드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Global Month of Caring)'이다. 그 일환으로 국내에서는 포드 전 임직원과 딜러사들이 '위시베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위시베어 프로젝트'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원 성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함께 환아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소원 성취 곰 인형을 제작해 환아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으로 올해는 총 200개를 손바느질로 완성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포드코리아 임직원뿐 아니라 공식 딜러사와 포드 파이낸셜 서비스를 공식 대행하는 아주캐피탈이 참여해 위시베어 제작 외에도 아동병원 레고 클래스, 환아 소원 성취 데이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골육종을 앓고 있는 자동차 정비사가 꿈인 2018 '위시 키드' 엄준군에게 1일 정비사 체험과 머스탱 GT 시승 기회를 제공해 그 의미를 더했다. 포드코리아는 4년간 위시베어 프로젝트를 통해 위시베어 710개를 제작해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며, 6000만 원 이상 기부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작은 움직임도 모이면 큰 파동이 되듯, 포드가 전개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 더욱 살기 좋고 행복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CAR CARE TIP

가을이 절정을 지나 낙엽 지는 늦가을로 접어들었다. 다가올 추운 겨울에 대비해 자동차도 월동 준비를 해야 한다. 포드자동차 마스터 테크니션이 꼼꼼히 짚어주는 겨울맞이 차량 관리법을 알아보자.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겨울철 타이어 관리

눈길이나 빙판길이 많은 겨울에는 타이어의 상태가 중요하다. 겨울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빠져나가므로 자주 공기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공기압이 정상 수치보다 낮을 경우 접지력, 내구성, 조향 성능이 떨어진다. 또 젖은 노면에선 수막현상이 심해져 운전자가 차량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1회 정도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타이어 교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교체해 접지력을 높여야 한다. 스노타이어를 장착하면 접지력이 높아 안정적이다. 그러나 타이어 4개 중 2개만 교체할 경우 차량 앞과 뒤 접지력의 차이로 오히려 오버스티어 또는 언더스티어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눈 쌓인 차량의 와이퍼 사용법

날씨가 추운 날 외부에 주차한 뒤 함박눈이 내려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가득 쌓여 크게 당황한 경험,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이때 앞유리의 눈을 치운다고 바로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와이퍼 블레이드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와이퍼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차량 앞유리가 눈으로 뒤덮여 있다면 먼저 눈을 대충 제거한 뒤 히터를 앞유리 쪽으로 작동시켜 얼어붙은 눈을 녹인 다음 와이퍼를 움직이는 것이 좋다.

워셔액 점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는 주행 시 노면의 눈이 녹아 앞유리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때문에 워셔액을 다른 계절보다 많이 소모하게 된다. 만약 워셔액을 모두 사용해 분사가 안 될 경우 워셔액 탱크에 임시로 물을 보충해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이 결빙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주행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워셔액 탱크에 남아 있는 물을 소진한 뒤 워셔액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에 워셔액과 물을 각각 한 통씩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포드자동차 마스터 테크니션
길현수

2017년 선인자동차㈜ 기술지원팀 DTT(Dealer Technical Trainer)
2012년 선인자동차㈜ 입사
2010년 서일전문대학 자동차과 졸업
2003년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 입사

포드자동차 오너를 위한 꿀팁

포드자동차 일부 모델에는 TDCi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TDCi 엔진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기에 가솔린엔진과 다른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시동 후 워밍업

겨울에는 디젤엔진 특성상 가솔린엔진에 비해 차량 워밍업 온도 도달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시동 후 2~3분 정도 공회전해 엔진 내 윤활유가 잘 순환되도록 한다. 워밍업하는 것만으로도 엔진의 수명을 늘리고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연료 수분 관리

외부에 장시간 주차하거나 혹한기 지역을 방문할 때는 연료탱크 내부 빈 공간을 통해 결로 현상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료를 가득 주유한다. 그리고 연료 필터 교체 시기가 멀지 않았다면 겨울이 오기 전 미리 연료 필터를 교체한다.

셋째, 연료 관리

올겨울, 이상 기온으로 급격한 기온 하락이 예상된다. 강력한 한파가 들이닥치면 디젤 차량은 연료에 의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디젤 연료의 성분 중 파라핀은 기온이 영하로 크게 떨어지면 큰 입자를 만들어 연료 필터에 일부 공급 라인을 막아 피해를 준다. 이를 경유 왁싱(Waxing/Gelling) 현상이라고 한다. 정유사들은 겨울철 경유 왁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하의 일정 온도 이하에서도 응고되지 않는 경유를 생산한다. 그러나 가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유소 연료를 사용해 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정품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영하의 추위가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수분 제거제나 동결 방지제를 연료에 주입하는 것이 좋다.

FORD KOREA NEWS

포드 부천 전시장 오픈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프리미어모터스가 포드 부천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부천 전시장은 330.57㎡(약 100평) 규모로 전 포드 모델을 전시하며 편안한 고객 상담실과 더불어 포드 고객을 위한 전용 상담 공간인 포드 라운지를 설치, 포드만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성장 도시 부천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접점일 뿐 아니라 시흥시와 경기 서부권의 중심 지역이다. 이번 부천 전시장 오픈을 통해 서부 경기 지역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포드 부천 전시장을 통해 부천시와 더불어 경기도 서부 지역의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프리미어모터스가 고객에게 최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 오포 서비스센터 오픈

프리미어모터스가 경기도 광주 오포 서비스센터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포 서비스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2293㎡ 규모로 사고 수리 및 대형 차량 전용 정비 공간을 포함해 13개의 워크베이를 갖췄으며, 1일 최대 50대 이상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다.

향후에는 대형 SUV 등의 차량 정비를 위한 독립 시설을 포함, 워크베이를 30개까지 확장해 1일 최대 150대의 차량 수리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프리미어모터스는 경기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하남, 양평, 이천, 여주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프리미어모터스는 적극적인 투자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포드의 장기적인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며, "오늘 광주 오포 서비스센터 오픈을 통해 프리미어모터스가 보다 넓은 경기도권 고객들에게 최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길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포드 제주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확장 오픈

프리미어모터스가 제주도에 위치한 포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확장 오픈해 본격적인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한다. 포드 제주 전시장은 총면적 229.3㎡ 규모로 차량 전시와 편안한 고객 상담을 위한 공간과 포드 고객 라운지 등을 갖췄다. 이와 함께 확장 오픈하는 제주 서비스센터는 지상 2층, 총면적 511.30㎡ 규모로 네 개의 워크베이를 갖춰 1일 최대 25대 이상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며, 포드코리아의 엄격한 기술 교육을 이수한 전문 테크니션이 제주도 내 고객에게 수준 높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프리미어모터스는 한국 시장에서 포드의 성장을 이끌어갈 파트너로서, 오늘 제주 전시장 확장 오픈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제주 고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최고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16회 서울오토살롱 참가

프리미어모터스(대표 김기호)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6회 서울오토살롱'에 참가해 '2018 익스플로러'와 '2018 뉴 머스탱'을 선보였다. 올해로 16회째 개최된 서울오토살롱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튜닝산업 협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서울메쎄인터내셔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 용품 및 애프터마켓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1만8358㎡ 규모의 전시장에서 국내외 약 150개사가 참여해 900개 부스를 설치했다.

프리미어모터스는 관람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전시차를 관람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티오토라운지'의 콘셉트로 디자인된 부스를 설치하였다. 또한 부스에서는 고객카드를 작성한 상담 고객들에게 튜닝과 다양한 사은품 등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며 활발한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 실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을 위한 안전운전 캠페인 '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Family Safety Campaign)'을 실시했다. '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은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주의한 운전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운전 습관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포드의 글로벌 안전운전 캠페인이다. '부주의 운전 예방 캠페인', '임직원 안전운전 서약', '초보 운전자 교육' 등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포드코리아는 이번 '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에 동참하는 한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포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5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우리 엄마·아빠 안전운전 성적표' 이벤트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의 눈에 비친 부모들의 안전운전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평가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안전운전 성적표를 작성하는 인증샷을 올리는 참가자 전원에게는 푸짐한 경품도 제공했다.

포드코리아 홍보 부문 노선희 총괄상무는 "이번 '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들이 평소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고, 자녀들과 함께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정에 안전운전 문화를 전파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2018 포드 뉴 서비스 모바일' 출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2018 포드 뉴 서비스 모바일'을 시작했다. '2018 포드 뉴 서비스 모바일'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한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있거나 현장 수리가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긴급 조치 후 필요 시 인근 포드 서비스센터와 연계해 관련 조치나 수리를 진행해 고객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숙련된 포드 테크니션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고객들의 차량 문제 해결을 돕는 포드 뉴 서비스 모바일은 전국 포드 딜러사에 배치된 총 15대의 쿠가(Kuga) 서비스 지원 차량으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제공한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는 "2018 포드 뉴 서비스 모바일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포드 정비사들이 친절하게 다가가는 서비스다"라며, "더 확대된 서비스 가능 지역 및 출동 시간 단축으로 운전 중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맞은 고객에게 현장에서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드코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장 수리 지원 서비스 '포드 서비스 모바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018 포드 뉴 서비스 모바일' 출범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018 포드 뉴 서비스 모바일'은 포드 고객센터(1600-6003)를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FORD GLOBAL NEWS

포드 머스탱(Mustang),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포츠 쿠페로 선정

머스탱이 2018 뉴 머스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포츠 쿠페'로 선정됐다. 시장조사기관 IHS 마킷(IHS Markit)의 자동차 등록 대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머스탱 등록 대수는 12만5809대로, 전 세계 스포츠 쿠페 차량 등록 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 대수 중 3분의 1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에서 머스탱의 인기가 높아져, 지난해에도 7125대가 판매되며 가장 많이 판매된 스포츠 쿠페로 선정된 바 있다.

포드의 세일즈 분석가 에리히 머클(Erich Merkle)은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머스탱은 미국의 디자인과 성능, 자유를 가장 잘 표현하는 차"라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내 스포츠카 고객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스포츠카의 여성 구매율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지난 5년간 머스탱의 여성 고객이 10% 증가하며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포드 머스탱의 전 세계 판매량은 41만8000대에 이르며, 5.0L V8 엔진이 탑재된 머스탱 GT가 가장 인기 있는 트림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 지난 4월 공식 출시한 2018 뉴 머스탱은 2.3L 에코부스트 모델과 5.0L GT 모델이 있으며, 각각 쿠페와 컨버터블 보디를 선택할 수 있다.

19회 차 2018 포드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발간

포드자동차는 19회 차로 발간한 2018 포드 지속 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2010년에 수립한 최초 계획보다 8년 앞서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치보다 두 배 이상 빨리 목표에 이른 것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드 글로벌 제조 시설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340만 메트릭 톤 이상 감축시킨 것이다. 이는 72만8000대 이상의 승용차에서 1년 운행 기간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버금가는 수치다.

포드 그룹 부회장 브루스 헤틀(Bruce Hettle)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진행해온 활동에 대해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조 시설 내 조명부터 공장 시설 통합까지 다양한 노력이 각각의 효과를 만들어내며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포드의 배출가스 절감은 10만 개 이상의 LED 조명 설치나 페인트 공정 개선 등 제조 과정상의 다양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 활동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포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도색 공정에 웨트-온-웨트(wet-on-wet) 도색 작업을 접목한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페인트 품질은 유지하는 한편 건조로를 없애 에너지 사용을 줄였다.

헤틀은 "현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중이며,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포드는 지속적으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목표를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효율성은 유지하되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를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포드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110억 달러로 확대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인업을 40개 모델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탱, 1000만 대 생산 돌파 퍼포먼스

포드가 머스탱의 1000만 대 생산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미국 디어본 본사와 플랫 록 조립 공장(Flat Rock Assembly Plant)에서 진행했다. 자사 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축하 행사에는 머스탱 차량이 동원돼 디어본 본사에서 플랫 록 조립 공장까지 행진했고, 100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 모양으로 차량을 배열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000만 번째로 생산된 머스탱은 최신 운전자 보조 기술의 첨단 기술과 460마력을 갖춘 6단 수동 컨버터블 '2019 윔블던 화이트 GT V8(2019 Wimbledon White GT V8)'로, 플랫 록 조립 공장에서 제작했다.

짐 팔리(Jim Farley) 포드 글로벌 시장 담당 사장은 "포드의 온 정신이 담긴 머스탱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차량"이라며 "디트로이트, 런던, 베이징 등 세계 각국에서 머스탱을 볼 때면 스릴감은 물론 누구나 미소 짓게 하는 힘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FORD LINEUP

*제원은 2018년 11월 기준

MONDEO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TDCi 디젤엔진	2.0L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듀얼 클러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및 변속 패들	듀얼 클러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및 변속 패들
배기량(CC)	1,997	1,997
최고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토크(kg · 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870X1,850X1,490	4,870X1,850X1,490
공차 중량(kg)	1,678	1,678
복합 연비(km/L)	15.6(2등급)	15.6(2등급)
도심 연비(km/L)	14.2	14.2
고속도로 연비(km/L)	17.5	17.5
CO_2(g/km)	121	121

MUSTANG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 EcoBoost® Premium	5.0 GT Premium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5.0L Ti-VCT V8 엔진
트랜스미션	10단 자동변속기	10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5,035
최고출력(ps/rpm)	291/5,600(Coupe, Convertible)	446/7,000(Coupe, Convertible)
최대토크(kg · m/rpm)	44.9/3,000(Coupe, Convertible)	54.1/4,250(Coupe, Convertible)
구동 방식	RWD	RWD
승차 정원(명)	4	4
전장X전폭X전고(mm)	4,790X1,915X1,380(Coupe), 4,790X1,915X1,400(Convertible)	4,790X1,915X1,380(Coupe), 4,790X1,915X1,400(Convertible)
공차 중량(kg)	1,675(Coupe), 1,725(Convertible)	1,795(Coupe), 1,820(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4(4등급)	7.5(5등급)
도심 연비(km/L)	8.0	6.2
고속도로 연비(km/L)	12.0	10.1
CO_2(g/km)	179	227

TAURUS

(신연비 방정식 적용)

	SEL/Limited
엔진 형식	2.0L 에코부스트 I-4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최고출력(ps/rpm)	243/5,500
최대토크(kg · m/rpm)	37.3/3,000
구동 방식	FWD
승차 정원(명)	5
전장X전폭X전고(mm)	5,155X1,935X1,545
공차 중량(kg)	1,890
복합 연비(km/L)	9.8(4등급)
도심 연비(km/L)	8.5
고속도로 연비(km/L)	12.0
CO_2(g/km)	174

KUGA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고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토크(kg · 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525X1,840X1,690	4,525X1,840X1,690
공차 중량(kg)	1,850	1,850
복합 연비(km/L)	12.4(3등급)	12.4(3등급)
도심 연비(km/L)	11.3	11.3
고속도로 연비(km/L)	14.1	14.1
CO_2(g/km)	154	154

EXPLORER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 AWD	3.5 AWD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3.5L Ti-VCT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3,496
최고출력(ps/rpm)	274/5,500	294/6,500
최대토크(kg · m/rpm)	41.5/2,500	35.3/4,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4WD	인텔리전트 4WD
승차 정원(명)	7	7
전장X전폭X전고(mm)	5,040X1,995X1,775	5,040X1,995X1,775
공차 중량(kg)	2,195	2,240
복합 연비(km/L)	7.9(5등급)	7.6(5등급)
도심 연비(km/L)	6.8	6.6
고속도로 연비(km/L)	9.8	9.4
CO_2(g/km)	215	227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0개의 전시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4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퀵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18년 11월 기준

Go Further

SHOWROOM

서울	대치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층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진석빌딩 1층	02-535-3800
	노원 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12 영광빌딩 1층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6928-3000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2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02-6941-3000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02-6420-1000
경기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14-2004
	용인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5번길 3 U타워 빌딩 1층	031-300-9600
	부천 전시장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70 에스에이치타워 1층	032-710-3355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22-1000
인천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832-0001
충청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042-823-2000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2-0007
	청주 전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7-0007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4	051-758-0075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센텀큐빌딩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200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7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20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55번길 31	033-646-2300
	춘천 전시장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28	033-263-42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32	064-759-9881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3661-0011
	양재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8길 5	02-2057-81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9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2039-3001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77-4	02-6370-1000
	용산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4	02-6177-1000
경기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01-7004
	일산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01-2888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4	031-8030-1000
인천	인천 중부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180번길 65	032-863-6080
	인천 구월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471-6080
충청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624	042-226-7707
	천안 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3-0009
	청주 서비스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8-0007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2-9	051-758-0046
	부산 학장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43	051-715-2000
	부산 판금도장 전문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114	051-647-5222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10번길 7	052-258-8004
	울산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27-6001
경남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12길 18	055-715-3003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5	062-515-1020
대구	동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5길 22	053-963-0011
	대구 수성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0755
경북	포항 서비스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76번길 12	054-281-7007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67	063-252-5400
강원	강릉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경로 2255번길 31	033-901-2004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221-10	033-762-0041
제주	제주 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56	064-755-1474~5

※포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콜센터 080-300-3673 365일 24시간 운영

Go Further